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30)(2/17/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23 장 큰 평화를 가져다주는 네 가지 길, 5-7 절

시 71:12 - 하나님이며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속히 나를 도우소서.

사 14:2-3 - 2.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와 그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3.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사 45:2 -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악한 생각을 물리치는 기도.

5. <제자>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 속히 나를 도우소서(시 71:12). 내 안에서 온갖 헛된 생각들과 큰 두려움들이 일어나서 내 영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해악을 받지 않고 그것들을 통과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6. <그리스도> 내가 너보다 앞서 행하여, 땅의 큰 자들을 낮추고, 감옥의 문들을 열며, 숨겨진 비밀들을 네게 계시해 줄 것이다(사 14:2-3; 사 45:2).

7. <제자> 주여,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한 생각들이 주의 면전에서 출행량을 치게 하소서. 환난을 당할 때마다 주께로 피하여서 주를 의뢰하고,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를 부르며, 주님으로부터 올 위로를 인내로써 기다리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유일한 위로입니다.

말씀과 해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의 육체로 당하는 것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당하는 것들이 있다. 어쩌면 육체적 괴로움보다 마음의 괴로움이 더 클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은 어디에서 올까? 생각지 못한 극심한 고난을 당한 옴은 육체적 고난과 함께 심각한 마음의 고통을 토로했다. **욥 7:11 -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우리에게 옴이 당한 것 같은 집중적인 고난은 없다고 하더라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경험하는 척박한 삶의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벌 중의 하나는 냉혹한 삶의 현실이었다.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주어졌고, 아담은 노동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되었다. **창 3:17 -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인간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으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결국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있다. **창 3:18-19 - 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 역시 괴로울 것임을 알게 한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언제나 마음에서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육신을 가진 우리의 자신의 먹고 입고 사는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다. **마 6:34 -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 하나님의 극진하신 돌보심 때문이다. **눅 12:6-7 - 6.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앳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7.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에 대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의 염려는 주를 향한 신뢰의 마음과 관계가 있음을 알게 한다. 마음에 불필요한 걱정으로 인한 고통이 임할 때, 그리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참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 불신앙의 마음으로 내 스스로가 마음과 생각의 고통을 만들어 내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

우리 내면의 괴로움은 나의 죄악 때문에 온다. 다윗은 시 38 편에서 죄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시 38:1-3 - 1.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2.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3.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인간으로 인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창 6:5-6 - 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사”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뉘우치다’, ‘후회하다’, ‘슬퍼하다’ 등의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다. 성경은 이 표현을 통해 죄악된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근심하시고”라는 말은 원어는 ‘고통스럽다’ 혹은 ‘슬프다’라는 뜻을 가진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한다.

죄악은 악한 마음을 만들고 그 악한 마음은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뿐이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던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거절하시자 이내 분노에 휩싸였고, 그 분노는 자신의 동생 아벨을 향했다. 창 4:5, 8-9 - 5.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8.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9.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죄는 죄를 낳고 우리 마음에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한다. 사 59:7 -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막 7:20-23 - 20.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 끊임없이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은 양산하여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번민하게 하며, 고통스럽게 한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다. 우리의 내면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존재와 삶을 보호하시고 보살피시는 주님을 향한 순전한 신뢰와 함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회개와 정화를 이루며 경험할 때 평온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내 안에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 생겨나는 번민, 염려, 고통, 악한 생각을 주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심령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정치, 경제, 종교적 억압과 핍박의 고통 속에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하여 주옵소서.
3. 우리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아시아 지역 선교사님들(카자흐스탄 이드림, 이집트와 아랍권 이바나바, 인도 임상순, 중동 정안나)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